

전북 농어촌공, 농지은행사업 '집중 추진기간' 운영

총 사업비 1312억원 중 80% 집행... 연말까지 100% 집행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종만)는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 중 농지은행사업비 총 1,312억원의 100% 집행을 위해 12월 15일까지 '집중 추진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북 관내에 금년 1,31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중이며, 10월까지 사업비의 80%인 1,049억원을 집행, 도내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농지은행사업 집중 추진기간에는 목표달성을 위해 전북관내 10개지사 전 직원을 포함한 농지은행사업 '특별 추진반'과 '연급사업 1인 1건 목표제' 등 목표달성을 위한 지사 자체계획을 수립 운영하고있다.

또한, 본부에서는 농지은행사업 담당 직원을 (경력, 사기, 진작, 직원간

협업) 유도, 농업인과 공사와 소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10월 현재 농지은행 주요사업 집행 실적과 성과를 살펴보면, 농업인 농지매입과 장기임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에 210억원, 과수농가 과수원매입에 28억원, 농지시장 안정화를 위해 농지를 매입, 비축하여 청년창업농 2030세대 농업인들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250억원 집행,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임대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수탁사업 1,436ha를 시행, 영농규

모 확대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과도한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사업에 303억원(85농가)을 지원, 농가가 부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고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자원을 위해 농지연금사업에 45억원(236명)을 집행, 고령농업인의 영농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으로 115억원을 집행, 총 4,497농가의 고령농업인에게 평균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박종만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은 "농지은행사업 집중 추진기간 운영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연말까지 적극적인 사업추진하겠다"며, "농업인뿐만 아니라 청년창업농, 2030세대의 젊은 농업인들이 농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보고 새로운 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비 신청은 해당 시, 군, 인근지사 농지은행부 방문, 또는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된다.

/김영태 기자

통계청, 올해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발표

1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농림어업' 36.7%로 1위
400만원 이상, 금융·보험업 37.8%로 가장 많아

올해 상반기 월평균 2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가 10명 중 4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임금근로자 2004만3000명 중 월평균 200만원 미만을 받는 비중은 38.3%를 차지했다. 이 중 100만원 미만과 100만~200만원 미만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0.6%포인트, 4.1%포인트 하락했다.

임금수준별 비중을 보면 ▲100만원 미만 9.8% ▲100만~200만원 미만 28.5% ▲200만~300만원 미만 29.1% ▲300만~400만원 미만 15.8% ▲400만원 이상이 16.8%로 집계됐다.

산업대분류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비중은 '농림어업'이 36.7%로 가장 높았다. 더욱이 '숙박 및 음식점업'은 27.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8%,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19.6%가 월평균 100만원을 넘기지 못했다.

이어 100만~200만원 미만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임대서비스업'에서 절반 가량인 49.6%로 가장 많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도 43.9%가 100만~200만원 미만을 받았다. 특히 200만~300만원 미만은 '건설업' (37.8%), '운수 및 창고업' (34.1%), '제조업' (33.7%), '부동산업' (31.1%), '도매 및 소매업' (30.6%),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30.2%) 등에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400만원 이상은 '금융 및 보험업' (37.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7.0%), '정보통신업' (32.7%),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8.0%) 등에서 많았다.

직업대분류별로 보면, 100만~2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비중은 '단순노무종사자'가 4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비스종사자' (41.7%),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7.0%), '판매종사자' (36.7%) 등의 순이다.

200만~300만원 미만은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1.9%)가 가장 높았고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41.7%), '사무종사자' (30.6%)가 그 뒤를 이었다.

/뉴시스

Start-up의 해외시장 진출 도와 드립니다

중기청, '수출 데모데이' 개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지방중기청)은 창업초기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전주 터존타워에서 '2018년 창업초기기업 수출 데모데이'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글로벌퍼낸스의 일환으로 센터 입주기업에 포함해 창업초기기업에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북도(전북경제통상진흥원), 익산시(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 전주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해외시장 공동개척을 위해 3센터가 참여, 지난 글로벌퍼낸스 1, 2차에서 11월중 베트남에서 진행될 수출 상담회에 참여

할 기업을 선정한다.

행사에는 수출에 대한 인식이 낮은 초기창업기업에 대상, 수출절차의 과정과 해외시장조사 등 무역실무기초교육을 하고 참여기업 질문에 의해 선정된 베트남 시장의 동향, 시장개척 전략 수출 사례 등 해외시장진출 실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전문 멘토링을 통해 참여기업의 수출아이템 분석과 수출가능성 진단 세무, 마케팅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한류열풍 등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여건이 개선된 만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유망한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김동연 부총리 "공공기관 고용세습, 전수조사 확대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발견시 아주 엄벌에 처하겠다"며 전수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할 뒤 기자들과 만나 "우선 (의혹이) 제기된 곳은 사실 조사를 확실하고 그 내용을 보고 조사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친인척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나와 고용세습 논란이 나왔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서울교통공사 외에도 한국도로공사나 한전 KPS,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현재 문제 제기가 이뤄진 기관부터 시작해 조사가 본격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

이된다.

김 부총리는 종량제 도입 등 주세 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선 "대중적인 소주와 맥주값이 안 오르게 하는 게 최우선 순위"라고 언급했다. 현행 종가세와 달리 종량제는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체제다. 종량제가 시행되면 캔맥주 가격에는 인화 요인이 생기지만 생맥주의 가격은 오히려 오를 수 있다.

그는 또 "내년에 전반적으로 주류 전체에 대한 종량제 도입 검토에 대한 용역 등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한국지엠(GM) 연구개발 법인 분리 문제에 관해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가 나서거나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

NH농협카드, 통신요금 부담 덜어 줄 '라이트카드' 출시

단말기 라이트할부 시 월 최대 1만7000원 할인
통신요금 자동이체 시 월 최대 1만5000원 할인
커피·영화 등 생활할인



NH농협카드는 소비자들 통신료 부담을 덜기 위해 (주)SK텔레콤과 제휴한 'NH농협 라이트카드'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SKT매장에서 통신기기 구매시 'NH농협 라이트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36개월까지 할부 구매 가능한 '라이트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라이트 할부 선택 시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 1만 1천원, 8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만 7천원을 할부 기간 동안 매월 통신요

금에서 할인해 준다.

라이트할부는 SKT상품 및 서비스를 24/36개월 할부 결제시 원금 균등상환방식 확정이자로 청구하는 할부서비스(일반할부 대비 낮은 금리 적용)이다.

라이트할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SKT통신요금 자동이체만 신청할 경우에도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 이용 시 9천원, 80만원 이상 이용 시 1만 5천원을 매월 통신요금에서 할인해 준다.

단, 라이트할부와 통신요금 자동이체 동시 신청 시 중복할인은 안되며, 라이트할부 할인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밖에도 커피,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가맹점, CGV영화관에서 이용 시 각 1천원 청구할인(제공, 조건)은 전월실적 40만원 이상, 건별 1만원 이상 결제시 전국 주요놀이공원 할인(제공, 조건)은 전월실적 30만원 이상, 월 1회, 연6회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상으로는 스타벅스, 이디야,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CGV 등 인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카드 발급은 전용 직통전화(1644-2866) 전국 NH농협 영업점, NH농협카드 홈페이지 모바일 웹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소프트웨어 산업 죽이는 금융분야 '헤드카운팅' 없앤다

금융위, 관행 개선 간담회 개최
금융사도 내년 초까지 자율개선

금융당국이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금융업계의 '헤드 카운팅(Head Counting)' 발주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8개 금융공공기관, 6개 금융협회 등과 금융분야 소프트웨어 외주 계약시 헤드 카운팅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헤드 카운팅이란 투입되는 인력의 숫자와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사업비

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투입 인력과 관계없이 사업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측정해 사업비를 정하는 '기능 점수'와 구별된다. 그동안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들은 헤드 카운팅 방식을 선호했다. 발주자들이 용역의 실제 성과보다 투입 인력 관리에 치중하면서 '갑질' 논란이 지적되기도 했다.

회의 참석자들도 사업 발주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용역사들을 관리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헤드 카운팅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과 금융업이 상생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관행을 개선해야한다는 쪽으로 의

견이 모였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분야일 뿐 아니라 일자리 생산력도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관 고시를 통해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 헤드카운팅 방식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일부 예외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 발주 때 투입 인력의 수와 기간을 명시할 수 없고, 사업 추진 중에도 투입 인력과 기간을 관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앞으로 금융분야에서도 헤드카운팅 방식의 발주를 금지하고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의 이행방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